



동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표지모델은 출산을 앞둔 김효정 씨(여수동)와 김태이 어린이(4세·판교동)



마음을 전합시다 그 힘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재테크뿐 아니라 삶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복리 효과는 적용됩니다.

지금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그 힘으로, 함께 살아가고,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MAY 05
Vol.298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통권 제298호 2020년 5월 1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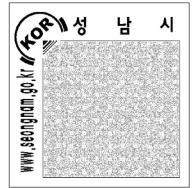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페이스북	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seongnamdiary.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ngnamsi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유튜브	youtube.com/user/sndiary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코로나19 극복, 당신이 있어 힘을 납니다

지난겨울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는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마음을 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연대’를 일깨우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힘,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연대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본다.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함께’라서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량의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기부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 콜센터로 접수된 한 시민의 건의로 3월 26일 시청, 구청, 50개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4곳에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기부함이 설치됐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모일까 의문이었다. 의문을 비웃듯 2주 동안 하루 평균 763장, 총 1만682장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마스크는 1주일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마스크와 함께 성금봉투도 나오고 기부함 옆으로 손세정제가 쌓였다.

고통을 나누겠다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외국인 건설노동자 등 성남시 곳곳으로 퍼졌다.

일반 시민들, 사회적기업, 관내 기업, 금융기관, 종교 단체, 유명인, 봉사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동참했고,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는 시민들도 많았다. 성금과 성품은 생필품이 된 마스크와 손세정제, 그동안 모든 동전과 저금통, 농산물키트, 영양제,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장비, 성남사랑상품권, 코로나19 페질환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등 다양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월드휴먼브리지는 4월 초 성

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상공회의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운동인 ‘성남연대 희망 캠페인’을 시작했다. 첫 번째 단체 후원으로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5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도 2,300여만 원을 후원했다.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보건소 의료진에게 전해 달라며 조합원 한철수·이경숙 부부가 재배한 산양산삼 1천 뿌리를 시에 기탁했다. 한살림성남용인생협은 “우리 지역에 주민 건강의 버팀목이 되는 공공병원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두유, 간편죽 등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성남시의료원에 전달했다.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손수 바느질한 천마스크와 반찬을 훌몸어르신에게 전하고 있다.

분당중앙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시에 기탁한 성금 2천만 원으로 구입한 마스크 1만여 장은 관내 293곳 건설 현장의 2천여 명 외국인에게 전달됐다.

성남시서점협동조합의 11곳 서점 조합원들은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를 돋겠다며 300만 원을 시에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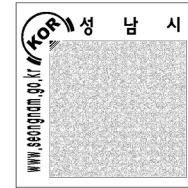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동참하고 싶다며 방법을 찾는 시민들도 있다.

시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선행, 이름 없는 선행도 많다. 3월 중순 한 익명의 50대 시민은 산성동파 출소에 ‘코로나19 사태로 사투를 벌이는 경찰관과 의료진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현금과 마스크, 편지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고 바삐 사라졌다. 중앙파출소에는 기초생활비를 받는 시민이 마스크를 기부하겠다며 찾아오기도 했다.

시민들의 줄 있는 기부와 후원, 응원메시지에 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위안과 힘을 얻는다. 성남시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시민들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겠다”며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다.

영국 언론 BBC는 21대 총선을 지켜보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무엇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증명하려는 듯하다”라고 평했다. 우리는 총선뿐만 아니라 온라인 개학 등 멈췄던 일상을 조심스레 시작했다. 확진자도 점점 줄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성숙한 시민 의식과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하다. 지금처럼 나를 믿고 서로를 믿고 힘을 낸다면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위기를 이겨내는 또 한 번의 연대의 역사가 이뤄질 것이다.



성금·성품 기부내역

기업 및 단체

경기도영양교사회 농산물키트 200개
경동인베스트 구리 항균장갑 2만 개
관내 청소업체 16개(한진용역, 나눔환경, 두림환경, 성남환경, 분석, 유진기업, 환경개발, 신우설비, 디엔에스, 금성환경, 중원기업, 한성산업, 중앙기업, 대림환경, 삼성환경, 평화) 2,000만 원
국민은행성남지점 마스크 1,200매, 손세정제 396개
국보마트 백미10KG 30포
국제약품(주) 마스크 3,000매
굿스뱅크 손세정제 180개
궁 전기자벽진 전기자체 1.5Kg 55박스
네이버노동조합 마스크 500매
농업회사법인 국민주식회사 컵라면 700박스, 봉지라면 100박스, 6,617,000원
다온정형외과 현물 라면 42박스 100만 원 상당
(주)대림환경 마스크 150매
대원사 백미 10kg 10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마스크 5,280개
돈까스클럽 금곡점 돈까스정식 도시락 50개
동북복래양꼬치반점 방역용마스크 300매
드론리더스솔루션뱅크 플러스뉴토피아 마스크 1,000매
(주)디엔티 공기살균기 100개
롯데건설(주) 백미10KG 50포
롯데백화점(분당점) 마스크 296매
루바마바이오랩 손세정제 250ml 495개
(주)르망고, 와인드와이어(주) 면마스크 5,000매
만나교회 등 10개 교회 5,000만 원
모란전통시장상인회 방역용마스크 500매
(사)무지개는언덕 백미10KG 50포
봉국사(주지 혀일 스님) 1천만 원
분당구가로청소단체 200만 원
분당수이학원 1,000만 원
비에스코스메틱 손소독제 500ml 1,000개
산성교회 백미 80KG
삼모 수제부직포마스크 200매
삼평동주민자치위원회 수제마스크 700개
상대원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의료용 비말 방지 마스크 100매, 컵라면 132개
상대원2동 주민자치위원회 면 마스크 320매
상상인자축은행 손세정제 등 25,800개
생명나누교회 마스크세트 20개
서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건강음료 10박스
서현지구대 마스크 25매
선경어린이집 100만 원
선한목자교회 생필품박스, 5만원 상품권 100개
성남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운 스님) 500만 원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강사협의회 천마스크 3,000매
성남시아린이집연합회 현금 23,755,100원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1,000만 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컵라면 400박스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 5천만 원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방상팀 11명 900만 원
성남자원봉사센터 소독제리필 500ml 2,000개
성남제일교회 300만 원
성남중앙신협 30만 원
세노컴퍼니 마스크필터 등 총 5,750,000원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100만 원
(재)스마일케이트 희망스튜디오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150만원, 공동생활가정 개소당 200만원 총 1억 원
(주)스마타민 오메가3 60통
(주)신세계건축사사무소 100만 원
(주)신한카드 아동마스크 12,000매
신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성금 2,728,136원
신흥3동 방위협의회 현금 30만 원
신홍종로약국 78만원
십자가 새생명교회 손소독제 500ml 70개
아세아도(주) 마스크 7,500매
아이엘사이언스(주) 2,000만 원
(주)아이큐브글로벌 마스크 450매
어머니자율방범대 수제 마스크 200매
에브리봇 멘탈 마스크 4,000매
(주)에어텍 손세정제 280점, 에어청정수 220점
(주)엔스홈쇼핑 식료품키트 400세트
(주)여의시스템 기탁금 1,000만 원
영도교회 수제 면 마스크(4,400매, 필터 22,000개)
예드림교회 현금 100만 원, KF94마스크 100매
오가닉팩토리 마스크밴드고리 300개

개인

가온베스튜디오 마스크 57매
권용도 196만 원
그린텍 성남가죽공방 면마스크 50개
김나연 마스크 10장, 현금 5만9,000 원
김유곤 안면 방호마스크 100매
리파안경 10만 원 상당 안경 후원
서울수차과 마스크 300매, 백미 10kg 40포
안0준 현금 20만 원
안명균 마스크 200매
정비나 수제1회용 마스크 150매
정철훈 면마스크 100매
조종숙 면탈마스크 50매
중원우체국장 50만 원
하리수(이경은) 손세정제 3,000개
함수지 마스크 230매

의약

10만원, 마스크 100매, 손세정제 500ml 20개,
면마스크 25매, 일회용 마스크 12매, 마스크 22매,
현금 10만 원, 현금 518,250원, 현금 30만 원,
현금 5만 원, 현금 6만 원, 22만 3,000원,
현금 100만 원, 마스크 10매, 현금 20만 원,
현금 27만 원, 상품권 15만 원, 동전 6만 원,
마스크 12매, 마스크 90매, 마스크 10매,
현금 10만 원, 640만 8,000원, 100만 원, 52만 원,
28만 180원, 10만 3,000원, KF94마스크 30매

상생과 나눔으로 희망을 키우는 (주)세노컴퍼니

고난에서 도전과 사랑을 길어 올리는 홍종국 대표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함께 자리한 성남시장애인협회원과 (주)세노컴퍼니 직원들



가운데가 홍종국 대표

(주)세노컴퍼니는 코로나19 마스크대란에 누구

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주

민들을 위해 마스크 교체형 필터 7천장을 기부했다. 판매하는

제품이라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이웃들을 위해 선뜻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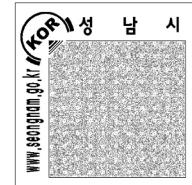
(주)세노컴퍼니(CENO COMPANY, 대표 홍종국)는 2016년 회사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해 꾸준히 관내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용품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남시 제2회 장애인 어울림 술련대회를 후원하고 성남테크노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노컴퍼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다.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쓰은 실력을 발휘하는 기회였다. 회사를 시작하고 노심초사 눈코 뜰 시간도 없었을 텐데 이러한 일들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했다.

30대 초반인 홍종국 대표는 상대원동에서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서 월세방에 살며 가난하고 외로운 성장기를 보냈다. 상처도 많았다. 그대로 있으면 문제만 일으킬 것 같아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지원했다.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가난한 집이 눈에 들어왔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모델하우스 신발 정리, 보험회사 영업, 콘도회원권 판매 등 많은 일을 했다. 심지어 신혼여행에 서도 일을 할 정도로 일만 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2층 건물을 사드렸고, 라이프케어 '닥터홍'을 론칭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헬스케어 '폭스밸리'도 시작했다.

가난과 외로움을 알고 있는 홍종국 대표는 소외되고 힘든 이들에게 마음이 가고 통하는 게 있다. 그들을 도우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치유됐다. 그만큼 뿐 듯한 일도 없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을 부르는 것 같다며 회사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주)세노컴퍼니는 보다 빠른 아이디어로 브랜드를 창출하고 제품을 소싱하고 광고와 마케팅을 한다. 세노컴퍼니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홍종국 대표는 학벌, 인맥, 자금이 없었다. 여러 면에서 밀리고 부당한 요구와 부수적인 일에 한숨이 나왔다. 1년 전부터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홍 대표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장은 세노컴퍼니와 같은 회사들이 서로 협력해 동반성장하고 시너지를 내는 시장이다. 협력사와는 신뢰로, 직원들과는 믿음으로, 소비자에겐 제품의 품질과 가성비로 상생하고자 한다.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남을 헤아리고 손을 내미는 홍종국 대표. 그의 신념과 바람이 이루어지길 힘껏 응원한다.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기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일 만에 10명대로 진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지금, 많은 이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기에 오늘을 맞을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사명의식으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 간호사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3월 17일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목표로 시의료원 간호사들은 개원 준비와 일반병동 환자 간호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월 23일,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시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일반병동 환자를 모두 퇴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 입원 준비를 시작했다. 2월 27일 9층 음압격리병동에 코로나19 첫 환자 입원을 시작으로 간호부는 115개 격리병상을 준비했으며 지금도 입원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간호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7일 0시 기준 시의료원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총 147명, 퇴원환자는 121명이다.

코로나19에 맞서 헌신하는 간호사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딸이었고 아내였으며 엄마였다.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될 당시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 인공호흡기와 고위험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역량을 갖춘 A 간호사는 5살 된 아이를 김포의 언니에게 맡기고 격리병동의 중환자 간호에 매진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이제는 아이가 도리어 영상통화로 “엄마 힘내세요!”라며 위로한다.

격리병동의 B 간호사는 7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집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두 달째 계속하고 있다.

신입 간호사들도 힘을 보탰다. 2월 이후 순차적인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의료원이 갑자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환자들을 간호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그들은 입사를 늦출 수도 있었지만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격리병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쪽을 선택했다. 단 한 살 미만 아이의 육아를 하는 간호사는 간호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병동에 배치하지 않았다. 이제 격리병동에 남은 환자는 26명, 이들까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건강하게 퇴원하는 그날까지 간호사들의 사투는 계속된다.

격리병동의 애절한 사연들

▲ 진우(가명)는 만1세가 되기 전 코로나19에 감염돼 엄마와 함께 시의료원에 입원했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간호사가 낯설어 큰소리로 울어댔다. 하지만 입원 기간이 지날수록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를 좋아했고, call bell을 누르면 간호사가 대답해주는

걸 알고 계속 누르기도 했다. 의료진이 들어가면 누워있다가도 반가워 난간을 잡고 뛰었는데 계속되는 양성결과로 퇴원할 수 없게 됐다. 간호사들은 주치의와 함께 간이 돌잔치를 해줘 보호자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 폐암으로 타 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전원 온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입원할 때부터 상태 악화로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던 중 폐렴이 심해져 사망했다. 가족들도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 임종하는 순간 환자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밤낮없이 환자 옆에서 간호하던 중환자실 간호사들이었다.

▲ 한 환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 타 병원의 배우자 사망소식을 듣게 됐다.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 • •

‘시의료원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어떤 의료인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배우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간호학생의 손편지와 시민들이 보내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47회에 달하는 응원물품을 보내준 **기관단체들과 시민들의 응원은 이들의 사명감을 더 일깨워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05



06



07

없는 상황에 가슴 아파하는 환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준 사람은 격리병동의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를 힘나게 하는 응원들

레벨D 방호복을 입으면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된다. 화장실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 고글이 얼굴을 짓누르며 찌르는 통증을 참아내야 한다. 고글과 방호복을 장시간 착용하면서 생긴 상처로 반창고와 품 드레싱을 붙인 얼굴은 만신창이가 된다. 두통과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

오현숙 간호부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환자 치료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 현장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간호사들의 전문역량과 사명감에 감사드린다”며 간호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종식될 때까지 환자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공적인 개원을 이뤄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드리는 성남시의료원 간호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선라 파트장(9층 격리병동)은 “입는 순간부터 땀이 나고 숨쉬기가 불편하고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환자분의 손과 발이 돋 간호를 한 결과 환자들이 건강하게 퇴원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보람되고 행복하고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전했다.

홍영애 파트장(7층 격리병동)은 “개인보호구를 입은 채 격리병실에 들어가 5~6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소명의식과 퇴원하면서 밝게 웃는 환자들의 얼굴”이라고 했다.

‘시의료원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어떤 의료인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배우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간호학생의 손편지와 시민들이 보내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47회에 달하는 응원물품을 보내준 기관·단체들과 시민들의 응원은 이들의 사명감을 더 일깨워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만의 장점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C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입원 중이던 병원에는 투석 가능한 격리병동이 없어서 시의료원에 전원을 왔다. 입원 시 고열과 패혈증 증세로 위험했지만 집중간호 후 지금은 호전돼 퇴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치료받을 수 있게 받아준 성남시의료원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거듭했다. 음압격리병동에 투석 시설까지 구비한 것은 위급한 투석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시의료원의 장점이다.

성남시의료원 간호부는 입사한 간호사들에게 코로나19 확진환자 간호에 맞게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간호의 이론 및 실무간호, 코로나 병동의 EMR 전산교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교육, 진료과의 질환별 간호교육, 감염교육 및 개인 방호복(LEVEL D) 착의·탈의 교육, 환자 응대를 위한 CS교육을 입사 후 3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또 꾸준한 모니터링을

01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응을 준비 중인 성남시의료원 음압병동 간호사들

02 오현숙 간호부장의 지도 아래 신입간호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있다.

03 이선라 파트장(9층 격리병동)

04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간호사들

05 격리병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

06 이중의 원장이 간호사교육을 하고 있다.

07 홍영애 파트장(7층 격리병동)

통한 감염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병원 내 직원감염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성남시의료원의 코로나 대응 활약상은 MBC 시리즈 M에서 5월 28일(목) 오후 10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외래진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시의료원

성남시의료원에는 현재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고 외래진료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환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의료진이 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을 찾는다.

성남시의료원, 5월 6일부터 외래, 입원 및 수술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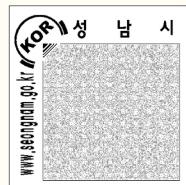
✓ 진료과목 : 21개 진료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 국가건강검진 실시

대표전화 031-738-7000

www.scmc.kr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100만 원)

권민교(단대동, 태권도학원 운영)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권민교 씨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원생이 없어 2달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안전을 위해 늘 방역에 힘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생기면서 원생의 발걸음이 끊어졌고 수입은 없는 데 임대료와 부대비용이 큰 부담이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신청,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찾았어야 했다. 그러던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100만 원'을 지원하다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떠올랐다"고 말한다. 작지만 큰힘이 돼줬다.

권 씨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성남시에 살고 있어서"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휴·폐업 영업장 손실보상 지원(100만 원)

박현미(여수동, 음식점 운영)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현미 사장은 2월 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왔다. 상가 안을 방역하고 다음날부터 운영이 가능했지만 주위의 시선과 소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5일간 휴업했다. 박 사장은 확진자와 직접 대면했다는 이유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박 사장과 확진자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온종일 3개 테이블만 받기도 했다. 이런 날이 지속되니 회복이 쉽지 않았다. 건물 주인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 임대료를 낮춰줘서 힘이 됐다. 혹시나 했던 휴·폐업 손실보상 지원금을 받게 되니 "복지혜택은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성남시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한다.

지원금 100만 원은 요긴한 곳에 잘 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접수안내>

- 지원대상 확진자 방문으로 1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업소
- 이메일 접수 janker@korea.kr
- 방문 접수 시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729-2842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300만원)

안성숙(양지동, 민간어린이집 운영)



부모님들의 응원 속에 29년째 이어온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통째로 흔들렸다. 원 등록 포기가 나오면서 기존 원생을 포함해 원생 수가 줄었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리고 선생님들 급여도 준비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어지면서 급격히 운영이 힘들어졌다.

원에서는 각반 선생님들은 영상수업 제작부터 그림책 동화구연 영상, 가정 놀이수업 키트 배송 등으로 부모님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다. 자체 방역과 차량소독, 수업도구 향별 소독, 매주 대청소 등에도 신경 쓰고 매번 부모님들께 상황을 알렸다. 이런 와중에 시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밀린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고 선생님들의 부족한 급여도 채워줄 수 있어 마음의 짐을 덜었다. 모두 함께 파이팅하며 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얻었다.

안 원장은 "성남시의 이번 지원정책은 목마름에 지친 곳에 내리는 단비 같은 지원"이라며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준 사례"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1인 40만 원)

김혜정(신흥2동, 5인 가족)



초등학생 자녀만 3명인 김혜정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던 일을 잠시 접고 학교와 학원에 다녀야 할 자녀들과 온종일 집에서 함께 지내야 했다. 하루 세끼를 모두 집밥으로 준비하고 간식도 챙겨주며 가끔 주말에는 외식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그러다 보니 식비가 크게 늘고, 자녀의 학습과 생활습관도 더 신경써야 해서 심리적 부담감도 늘었다.

만 7~12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비는 겨울 동안 자란 자녀들의 새 옷 구입이나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부족한 학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원금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지만, 저도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에요."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10만 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 원)

정무성(하대원동, 택배기사)



택배기사 정무성 씨는 코로나19로 배달물량이 명절 때처럼 많아져 감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바쁘다. 최근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 원과 함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모두 20만 원을 신청해 지원받았다.

혜택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나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줄어서 힘든 상가들을 찾아가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정무성 씨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이번 정책은 소비를 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에 좋은 정책을 펼쳐서 감사한다고 전했다.

<접수안내 : 7면 하단 참조>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자체 추가 지원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 원 지급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2개월간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만9천여 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30일 정부에서 밝힌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고용안정망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과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만2천여 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 종사자 7천여 명이다.

이들에게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40일 간(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

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접속)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6월 30일까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과 일자리기획팀 031-729-2851~4

저소득층 2만2,985가구 '코로나19' 한시생활지원

선불카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4개월분 지급

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만2,985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로 132억 원(국비)을 지급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9,131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3,854가구다.

4개월분 지원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5인 가구 166만 원, 6인 가구 192만 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 5인 가구 128만 원, 6인 가구 148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 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 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지역 내 4만7천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31-729-2892

성남사랑상품권 1천억 원 10% 특별할인 판매

5~8월 한시 적용...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5월 1일~8월 31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4개월간 특별할인을 한시 적용하는 상품권은 지류 500억 원, 모바일 500억 원 등 1천억 원 규모다. 일반시민 구매분이며,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다. 지류 상품권을 사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NH농협은행, 신협 등 118곳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하면 된다. 특별할인 기간 내 조기 소진 시 평소대로 6% 할인, 월 100만 원 구매 한도로 판매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체크카드 형태까지 3종류 발행된다. 지역 가맹점(지류·모바일 1만여 곳, 체크카드 4만7천 곳)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학원, 개인택시에서도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3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신청하세요

재난연대 안전자금

- 방문신청 4. 20~7. 31 평일
- 방문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내 농협(16:00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신청주간	대상가구	신청 및 카드 발급 기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주말·휴일
		월	화	수	목	금	
4. 20~4. 26	4인 가구 이상	1	2	3	4	5	해당신청 기간 중 미신청자
4. 27~5. 3	3인 가구	6	7	8	9	0	
5. 4~5. 10	2인 가구						
5. 11~5. 17	1인 가구 및 미신청자						
5. 18~7. 31	전체(누구나)						X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 가능

아동양육 긴급돌봄

- 지원대상 만 7~12세 아동(2007. 1. 1~2013. 3. 31 출생아)
- 방문신청 4. 20~5. 29(아동 부모 또는 대리인)
- 방문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3. 31 기준)
- 신청방법 부모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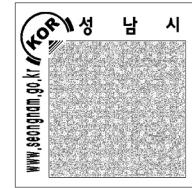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 신청기간 5. 8까지
-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성남시 홈페이지)
- 방문 신청(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사업장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 온라인 신청 4. 20~8. 10(성남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5. 1~6. 30(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성남시민 독서릴레이 ⑯ 김혜원 호서대 교수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 위대한 능력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지음
청아출판사펴낸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생사를 넘나드는 참혹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정신분석 방법인 로고테라피(의미치료)를 세상에 내놓은 빅터 프랭클 박사의 자서전적 체험수기다. 저자는 '강제수용소에 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책을 시작한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비극적 상황에서 보여준 일상을 관찰하며 기록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저자는 자신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매우 특별한 점을 발견한다. 결국 인간이 마지막까지 사수할 수 있고 타인에 의해 절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점이다. 이 책, 그리고 이후 세상에 소개된 의미치료에서는 니체가 말한 다음 문구가 전체를 관통한다.

“왜(why)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how)’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저자의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책의 부분을 인용한다.

“강제수용소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평범한 삶에서는 당연했던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이 여기서는 철저히 박탈당 한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뿐이다.”

하루아침에 최악의 삶으로 내동댕이쳐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걸맞은(!) 삶의 태도를 취한다. 절망, 분노, 공포, 무기력, 자포자기, 굴종… 이러한 감정과 이에 따른 태도는 스스로에게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믿게 만든다.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는
시민과 시민이 책으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BOOK
RELAY
17

- ① 은수미 성남시장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 ② 노희지 보육교사 『언어의 온도』
- ③ 일하는학교 『배를 엮다』
- ④ 이성실 사회복지사 『당신이 웃다』
- ⑤ 그림책NORi 이지은 대표
『나의 엄마』, 『어린이』
- ⑥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발까마귀' 안성일 선생님
『풀들의 전략』
- ⑦ 구지현 만화가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
- ⑧ 이무영 영화감독 『더 로드(The Road)』
- ⑨ 김의경 소설가 『감정노동』
- ⑩ '비북스' 김성대 대표 『단순한 진심』
- ⑪ 스토리텔링 포토그래퍼 김윤환
『포노 사피엔스』
- ⑫ 김현순(구미동) 『샘에게 보내는 편지』
- ⑬ 주부 유재신 님 『정원가의 열두 달』
- ⑭ 황찬욱 학원장 『위험한 과학책』
- ⑮ 한영준 송림고 교장 『라틴어수업』
- ⑯ 성남교육지원청 이동배 장학사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 ⑰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죽음의 수용소에서』
- ⑱ 정소영 세계동화작은도서관장

독자 리뷰 모집

성남시민 독서릴레이에서 소개하는 책을 읽은 후 리뷰(원고지 6매 이내)를 <비전성남> 편집실(이메일 sn997@korea.kr)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031-729-2076~8

하지만 저자는 그 조건들 속에서도 ‘자신의 시련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누구보다 저자 자신이 처참한 경험 속에서 이후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유지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정신과 의사인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발전시켜 이후 어떻게 환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도울지에 대해 연구하기를 갈망했고, 이러한 삶의 목적이 그의 시련을 가치있는 경험이 되도록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유태인 수용소에 감금된 수용자의 삶은 단 한 개의 선택사항도 없다. 심지어 간수의 손가락 까딱거림에 따라 삶과 죽음이 한순간에 결정되는 최악의 자유박탈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이 상황에서도 사람은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타인이 통제하고 결정권을 갖는 것은 육체에 대한 것 일 뿐, 정신적 독립과 영적 자유는 스스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절망을 말한다. 그리고 그 절망이 필연적이라고 믿는다. 자신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프랭클 박사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은 이러한 ‘자동적 연결’에 의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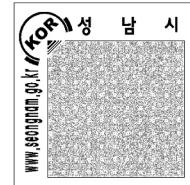
과연 인간이 그렇게 단순할까.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자극에 따른 ‘반응적인’ 감정과 삶의 태도를 취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부분이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가를 것)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신 고유의 특성대로 심리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매우 ‘비조건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저자는 다시 강조한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인이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삶을 올바로 살아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의미다. 프랭클 박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 점을 멋지게 실천했고, 그 결과를 세상에 발표함으로써 우리에게 인간 모두가 지닌 위대한 특성을 믿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의 책에 자주 인용되며 필자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 철학자 니체의 말로 글을 맺으며 절망이 절망적 상황에 따른 필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독서릴레이 18번째 주자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마을 실천하는 정소영 세계동화작은도서관장님입니다.



성남형교육으로 ‘빛깔 있는 학교 만들어 나갈 것’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 학교혁신 및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성남시는 올해 1,113억 원을 들여 ‘성남형교육과 청소년 지원사업’을 편다고 4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공평한 배움의 기회 제공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156곳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생 9만5,870명이 대상이다.

학생역량 강화·지역특성화 사업에 집중

시는 ‘빛깔 있는 학교혁신’을 목표로 학교별 특색사업, 학생자치사업, 동아리운영 지원 등에 62억 원을, 성남만의 특색있는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으로 안전·환경·민주시민·문화예술 4개 분야 29개 프로그램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안전교육 성남’ 프로그램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기준으로 안전영역별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제공한다. 환경분야는 환경시설 탐방, 숲·하천 탐사, 기후변화, 목공수업 등 생태교육을, 민주시민분야는 학교폭력예방, 더불어 사는 시민, 회복적 생활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을 실시한다.

문화예술분야는 뮤지컬 관람, 초등학교 72개교 대상 ‘찾아가는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관람, 교육연극, 20개교 특수교육 학생 ‘예술연계수업’, 특성화고 ‘악기·음악 세계여행, 음악회(POP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평한 배움의 기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상초·청솔초 2곳 영어체험센터와 청솔중학교 1곳



중국어체험센터 운영에 21억 원을 지원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인다.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올해 16개, 내년 13개 학교 지원을 통해 2년 이내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올해 61억 원을 지원한다. 대장지구 개발로 신설되는 학교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에는 50억 원의 재원을 투입, 내년 6월 개교 때 완공할 예정이다.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학교는 교육청과 협력해 72억 원 예산을 풍생중, 동광중 등 52개 학교의 외벽교체 공사를 포함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쓴다.

또 학교 유튜브 공간을 활용해 안말초교 등 9개교의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한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은 내년 하반기까지 4개교(단대·대하·금

빛·상탑 초교) 추가 개관을 위한 시설개선비 12억 원을 지원, 모두 13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미래형 진로교육, 학교청소년 복지상담 활성화

시 전체 36개 고등학교에 컴퓨팅사고력 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운영한다. 고등학생 1,810명을 대상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SK 하이닉스, 포스코ICT 등 국내 유수 기업들과 코딩, 반도체, 나노 등의 미래형 진로교육을 272회 실시한다. 시는 14억 원 예산을 투입, 30개 초·중학교에 학교청소년 복지상담 활성화도 지원한다. 현재까지 위기청소년 학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집단교육과 위기사례 상담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 36개 고등학교 진학상담, 진로멘토링, 진학컨설팅 추진 ▲ 대학생 반값 원룸 및 학습도우미 아르바이트 제공 ▲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재료 제공 지원 ▲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애탐청소년수련관 개관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전체 156곳 초·중·고등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라인 학습도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에도 적극 나섰다.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031-729-8852

‘신중년, 신세계’로 도전할 2020년 성남시민학교 학습자 모집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성남시는 자신만의 직무 경험이나 재능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기술을 나누고 싶은 뜻을 가진 신중년 성남시민 대상 ‘2020년 성남시민학교 학습자’를 모집한다. 과정은 총 7개 기관, 9개 프로그램, 총 210명을 모집한다.

- 모집대상 만 50~64세(1956~1970년생, 신분증 기준) ○ 모집기간 5. 1(금)~5. 22(금)
- 접수방법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 신청서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 제출가능, 입학설명회는 반드시 참석 (이메일: 7293082@korea.kr)
 -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접수 가능(신분증 지참)
 - 과정별 미달이 있을 경우 추가 접수(평생학습관 홈페이지)
- 교육생선발 입학설명회 당일 상담 및 신청서 검토 후 선발(선착순 아님, 모두 참석요)
- 입학설명회 5. 22(금) 14:00~17:00 성남시 평생학습관 2층
 - 교육기관 프로그램 상세 설명 및 상담
 - 수강료 무료, 프로그램별 재료비 등 상세 설명 확인
- 입학식 5. 29(금) 14:00~16:00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 반드시 참석(출석일수에 반영됨)
- 문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 031-729-3083, 3086

운영기관	교육시간	프로그램명	강의내용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105호)	6. 4~7. 23 매주(목) 10:00~13:00	신중년, 생활 안전지대, 안전한 노후를 위한 필수 지침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기본 소양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
	6. 3~7. 22 매주(수) 13:00~15:00	인생절정학교 브라보 은퇴설계	신중년 세대들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 자신의 삶과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웰니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
을지대학교 (박애관 323호)	6. 5~8. 21 매주(금) 14:00~16:00	웰에이징 & 웰빙 피레스	발레 응용훈련법인 피레스를 통한 신중년들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램
동서울대학교 (강의실)	6. 1~8. 17 매주(월) 13:00~16:00	즉흥연기와 중년의 독백	연극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마음의 동력을 얻어 사회활동에 기여하며 삶의 활력 키우기
신구대학교 (신구대식물원 숲전시관)	6. 3~8. 26 매주(수) 14:00~17:00	인생 정원 창작소	풍요로운 삶, 나만의 정원 만들기 - 정원식물을 활용해 실내외 정원을 직접 만들어 보기
	6. 10~8. 26 매주(수) 10:00~12:00	신중년의 나와 마을기록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해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교육실)	6. 11~8. 27 매주(목) 10:00~12:00	신중년, 인생 그림책	자신의 인생스토리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그림책으로 제작하는 과정
	6. 5~8. 21 매주(금) 10:00~12:00 or 13:00	한컴아카데미 (판교교육센터 1차)	빅데이터를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와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지 이해
성남산업진흥원 (진스타워 7층)	6. 4~8. 13 매주(목) 18:30~21:30	인생 사업 반세기의 삶을 위한 창업 기초 솔루션	창업 기초 교육과정 - 강의와 실습, 멘토링 ※ 사업계획서 제출요(샘플 참조)

※ 각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성남시 공공도서관 '책 대출' 드라이브·워크 스루 운영

4월 16일 시작 첫날부터 3일간 예약 마감될 만큼 시민들 큰 관심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성남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전염병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2월 25일부터 관내 14곳 모든 공공 도서관의 문을 닫았다. 도서관이 휴관하면서 도서관의 모든 시설 이용과 도서 대출 및 반납이 모두 불가능해졌다. 이례적으로 도서관의 임시 휴관이 길어지자 책 읽는 시민들을 위해 4월 16일부터 '사전예약 드라이브·워크 스루 도서관'을 열었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는 자동차를 타고 각 도서관 지정 장소에 가서 예약한 책을 받아가고, 워크 스루(Walk

Thru)는 도서관별로 설치한 대출 장소로 걸어가 예약 도서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중앙·분당·구미·판교·복정·중원어린이 도서관은 드라이브·워크 스루 방식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서현·무지개·판교어린이·운중·해오름·논골·수정·중원 도서관은 워크 스루 대여만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 로그인 → '휴관 중 도서 사전예약 대출하기'에서 도서 상세정보 작성 및 수령 희망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수령 희망시간은 2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예약은 도서 대출 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당 20명으로 제한한다.

이용 대상은 성남시 도서대출회원(정회원)이며 1인 6권(유아 10권) 14일간(연장 가능) 빌릴 수 있다. 도서 수령은 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법정공휴일 제외). 대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서대출회원증(모바일회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반납은 책을 빌린 장소나 무인반납기로 하면 된다.

구미동에서 판교어린이도서관으로 책을 대출하려 온 황윤선 씨는 "평소 공공도서관 여러 곳을 이용해 왔는데 임시 휴관 중이라 책을 빌리지 못해 너무 아쉬웠어요. 드라이브·워크 스루로 책을 빌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라며 예약한 두 꾸러미의 책을 받아갔다. 도서를 지정시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반납 처리된다. 반납된 도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 5일간 보관 후 대출한다.

드라이브·워크 스루 '책 대출'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따라 도서관 문을 열 때까지 지속된다.

4월 22일 현재 총 8,716명이 다녀갔고, 3만6천여 권 도서 대출 반납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도서관 이용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별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동화구연, 릴레이 소설 쓰기, 우주탐험대, 시 읽는 독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별 홈페이지와 '성남시립도서관'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전자책 4만1,800권, 전자잡지 2만4,147권, 오디오북 1,051권 등 총 6만6,998권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도서대출증으로 스마트하게 책을 빌려보고 싶다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성남시청(1층 로비), 수정구청(지하 1층), 탄천종합운동장(1층 로비), 신흥역(중앙지하상가)에 설치돼 있다.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031-729-4672

장애인 택시바우처 확대 대상 2년 앞당겨

뇌 병변·지체 장애인도 요금 65% 할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수요 창출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에 5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지체 장애인 4,981명도 포함해 확대·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 애초 2022년 계획이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겼다.

대상 확대를 위해 시는 올해 1억8,700만 원의 사업

비에 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해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 바우처 사업은 모두 6,83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65%의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도엔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359명 모두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를 가지고 가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2

성남 본도심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 60명 뜯다

성남시는 60명의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을 구성해 4월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은 수정·중원지역 본도심 하수도 악취 문제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들은 10월 말까지 수정·중원지역 내 신흥·태평·수진·단대·산성·양지·성남·금광·은행·상대원·하대원동 등 21개 동 지역의 악취 발생 상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해당 지역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류하는 방식의 하수관이 설치돼 생활하수 냄새가 상존하는 곳이다.

동별로 2~3명의 시민개선단이 악취 취약 시간대인 오전 8~9시, 오후 6~8시에 담당 지역을 순찰하면서 악취 발생 지점, 반복 발생 지점을 조사하고, 주민 불편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순찰 결과는 운영일지에 기록한다. 악취 발생 종류, 장소, 강도, 빈도,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시는 시민개선단의 현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악취 현황 추이를 분석한다. 분석자료를 토대로 악취 종류 별, 농도별 저감 조치를 한다.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031-729-8552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설계’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기업 (주)모빌리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주)모빌리오 이진식 대표

SF영화에 등장하는 컴퓨터와의 대화, 컴퓨터와 기계가 서로 명령을 주고받는 장면이 현실로 다가왔다. 사물인터넷 발달로 사물과도 소통이 가능해지는 트렌드에 맞춰 제조업에서도 ‘스마트팩토리’가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 단순히 제조공정의 자동화가 아니라, 공장 내 설비에 사물인터넷을 설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진동예측보전 시스템’으로 첨단 스마트팩토리를 설계하는 (주)모빌리오(대표 이진식)를 찾았다.

‘진동예측보전 시스템’이란 진동 분석 기술로 모니터링 대상 기기나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수개월 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계설비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기 불균형, 베어링 고장, 기기 조임 상태 불량과 헬거움, 기어의 마모 등 다양한 고장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진동·소음제어 전문가 이진식 대표는 “사람이 아프면

열이 나듯이, 기계도 아프면 진동이 발생합니다. 모빌리오는 사람이 MRI를 찍는 것처럼 기계의 내부 부품 상태까지 진동을 통해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밝혔다.

2014년 무인자동차가 활성화되기 전에 비전 시스템으로 벤처를 시작해 실리콘밸리에서 IR(Investor Relations) 발표했던 이 대표. 테슬라, 구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의 미팅에서도 호평이 이어졌고, 실리콘밸리의 네트워크 및 창업가 정신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

무인자동차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스마트팩토리에 적용했다. 공장에서 필요한 기계 진동 모니터링을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비전 솔루션, 디지털 변환 및 통신네트워크 기술로 향상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러시아·핀란드의 대기업들과 업무를 제휴하고 있다.

해외를 포함해 총 15건의 특허·상표 등록 등 지적 재산도 확보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일본, EU에서 획득한 해외 인증, ISO 9001 및 벤처기업 인증 등을 보유 중이다. 2017년 성남산업진흥원 벤처부문 최우수상, 2019년 부산 국제조선해양대제전 최우수상 수상 등으로 주목받으며 해군과 협업을 시작했고, 철도기술연구원과 전철 고장 감지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CES 2019·2020을 통해 미국 펜타곤의 협력업체와 수출 협의 중이고, 미국 실리콘밸리 내 톱클래스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볼트사와 투자상담회 후 미국 진

출 발판도 마련했다.

이진식 대표는 “스마트팩토리라 하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떠올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현장을 방문해 보면 기계설비의 고장을 작업자의 감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데이터와 진동분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모빌리오는 데이터로 토론하는 문화, 작업자를 엔지니어로 키워내는 시스템 확산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완성으로 둔화된 국내 제조업 재부흥을 실현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도약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모빌리오 031-713-2030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킨스타워 20층 10호



작업현장에서 진동예측보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시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입주기업 모집



- 접수기간 4. 29(수)~5. 19(화) 18:00까지
- 입주기간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간(연장심사 후 1년 연장 가능)
- 모집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사업자
- 지원내용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지원(보증금 50만 원, 월 관리비 3만 원 별도), 입주기업 수요조사 간담회, 맞춤 멘토링 지원, 전문가 컨설팅
- 지원방법 성남시 또는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방문·우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성남수정새마을금고 5층 성남시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 이메일 mjkim4338@korea.kr

성남시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031-729-8547

하나로 성남
시민이 사랑합니다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입주기업 모집

4. 29.(수) ~ 5. 19.(화)
18:00까지



입주기간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간 (연장심사 후 1년 연장 가능)

모집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 사업자

지원내용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지원 (보증금 500,000원, 월 관리비 30,000원 별도)
- 입주기업 수요조사 간담회
- 맞춤 멘토링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방법 성남시청 또는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방문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성남수정새마을금고 5층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 이메일 : mjkim4338@korea.kr

선정일정 접수 (20.4.29-5.19) > 서류심사 (20.5.21-5.22) > 발표심사 (20.5.26) > 결과통보 (20.6.1) > 계약/입주 (-20.6.30)

* 지원한 사업은 홈페이지 오픈 공고문 참조

문의처 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담당 주무관 (☎ 031-729-8547)

성남시
ME
SU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www.lpgbus.co.kr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2011년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 통학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사업 내용
사업 기간 2020. 01 ~ 소진 시까지(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수 32대(성남시)
지원 금액 LPG 통학차 구매 보조금 500만원/대

사업 절차

```

    graph TD
        A[지원신청서 제출] --> B[대상 선정 및 통보]
        B --> C[LPG통학차 계약]
        C --> D[보조금 수령]
        D --> E[구매 보조금 청구]
        E --> F[경유차 폐차 및 LPG 신차 등록]
    
```

문의처

- 거주지역 지자체 (LPG통학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 홈페이지 <http://www.lpgbus.co.kr>

환경부 대한LPG협회

사업대상	2011년 12월 31일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 통학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신청기간	2020. 4. 6(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수	32대
지원금액	LPG 통학차 구매 보조금 500만 원/대
신청방법 및 절차	성남시청 홈페이지 → '어린이 통학차량' 검색 ※ 공고문 참고
문의처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612

성남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제안 공모전

성남시는 시민들의 참신한 생각과 격의 없는 제안을 통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예방 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시민제안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사업) 제안
 - 미세먼지 저감 또는 예방 아이디어
 - 생활 속 자원순환 및 활용, 에너지 절감 등

공모대상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성남시민 또는 단체 누구나

공모기간 5. 11(월)~6. 15(월) 18:00까지(5주간)

제출서류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새소식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jhwui@korea.kr), 팩스(031-729-3529)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 * 2020. 6. 15(월) 18:00까지 접수(도착) 분에 한함
 - 방문접수 : 성남시청 동관 5층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결과발표 2020. 7월 중(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문의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 이야기

꽃의 왕, 5월의 모란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5월이 되면 탐스럽고 화려한 모란꽃이 수줍은 꽃망울을 맺고 어느새 만발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신라 신문왕이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부탁하자 설총이 왕에게 들려준 화왕계(花王戒)에서 모란이 등장하는데 '백화의 왕 모란'으로 표현됐다. 옛사람들은 탐스럽고 커다란 모란꽃을 꽃의 왕으로 꼽았고 부귀의 상징으로 여겼다. 모란은 장식화나 병풍, 상감청자와 분청사기, 나전칠기, 방석, 기와의 마무리장식 그리고 화문석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물건 속에 그려졌다.

경복궁의 자경전(慈慶殿) 꽃담에도 모란은 등장한다. 22세에 요절한 효명세자의 부인 신정왕후는 흥선군의 차남을 양자로 삼아 고종으로 즉위시켰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신정 왕후의 거처를 자경전이라 부르고, 화려하고 세심하게 만들어 은혜에 보답했다. 이 자경전에 아름다운 꽃담이 세워지는데 신정왕후의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꽃담 속 모란에 표현했다.

모란의 고향은 중국이다. 모란은 중국인들도 아끼고 좋아하는 꽃이었다. 중국에서는 모란꽃 그림에 나비를 그리지 않았다. 모란꽃은 부귀를 뜻하고 나비는 질수(耋壽, 80세)를 뜻하기 때문에 부귀질수, 즉 80세가 되도록 부귀를 누리기를 기원한다는 뜻이 돼, 나비를 그려 넣는 것이 오히려 영원히 부귀를 누리라는 의미를 제한하기 때문이었다.

모란은 당나라 여황제 측천무후에게 낙양으로 추방당한 꽃이어서 '낙 양화라고도 부른다. 692년 한겨울, 즉위식을 마친 측천무후가 겨울이라 꽃이 피지 않은 정원 모습에 서운해했다. 측천무후에게 잘 보이려는 부하가 '측천무후의 명령이 있다면 꽃의 신이 왕명을 받들어 꽃을 피울 것'이라고 아첨했다. 꽃들의 신에게 개화명령을 내린 측천황후는 다음 날 아침 매화를 비롯한 꽃들이 밤사이에 꽃을 피운 걸 확인하고 기뻐 한다. 그런데 정원의 모란만은 꽃을 피우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자 측천 무후는 불을 지펴서라도 모란꽃을 꼭 피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아무리 불을 지펴도 모란이 꽃을 피우지 않자 화가 난 측천황후는 정원의 모란을 모두 낙양으로 추방해버렸다는 것이다.

모란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꽃이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모두가 조금은 지친 상태로 4월을 보냈다. 부귀를 상징하며 5월에 만발하는 모란꽃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코로나19도 슬기롭게 극복해 모든 성남시민들이 이전의 경제활동을 활기차게 이어가며 5월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NEWS 01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마련

5월 온라인 전용 상담 창구,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성남시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해 5월 본격 시행에 나선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SNS) 전용 창구를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1대1 비대면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수정구 태평동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지원하는 센터를 별도 설치한다. 분야별 7명 전문가가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불법 촬영·유포·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기관·경찰 진술 동행,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통합 지원한다.

성남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단도 구성한다. 성폭력 예방 전문교육을 이수한 20명 시민을 모집해 사이버 불법 사이트를 탐색,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초·중·고등학교 순회 교육을 추가 접수해 1천 학급(2만5천 명)

으로 확대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도 인권감수성 증진 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성 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유네스코는 효과적인 성교육은 성적·사회적 관계에 대한 선택을 중요시하는 것이며, 관계,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경, 수용, 인내, 공감을 통해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국제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재단 각 시설에서 진행하는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평화·민주시민교육 ▲ 참여활동을 위한 동아리·자치활동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권감수성 증진교육(사이버 성폭력,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등)의 커리큘럼 내용을 재구성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 1388(온라인·카카오톡) 기능은 더욱더 강화해 익명성이 약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다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729-2924, 성남시청소년재단 031-729-9000

NEWS 02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내년도 예산에 반영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을 위해 6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시 단위 정책사업과 동 단위 지역사업이다.

시 단위 정책사업은 사회복지·보건·문화·교육·체육·도로·교통 분야에서 시 전체 또는 3개 동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안받는다. 동 단위 지역사업은 50개 동별 해당 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안받는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 등이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구·동 예산담당 부서에 비치한 제안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 내용을 적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해도 된다.

제안받은 사업은 50개 각 동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현장 실사, 사업 추진 부서별 검토,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로 운동하고 싶은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163 개 사업을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는 상시 이뤄져 7월 1일 이후 접수분은 2022년 예산 반영 심의 대상으로 넘긴다.

예산재정과 경영투자팀 031-729-2354

알아두면 좋아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기간 2020. 4~8월(5개월)
- 감면대상 상·하수도 사용 모든 업종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혼합용, 전용공업용)
- 감면율 사용요금의 50%
- 감면방법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고지분부터 부과

물관리정책과 요금팀(상수도) 031-729-4061~7

물순환과 하수도행정팀(하수도) 031-729-4171~5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무료 제공

- 신청장소 시 토지정보과, 3개 구 시민봉사과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재산 상속권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제적등본(2007. 12. 31. 이전 사망),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

*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및 사망진단서로는 열람 불가

성남시 토지정보과 자격팀 031-729-3363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1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지원대상**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
 -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전화로 확인 요망. 전통시장고객은 상인연합회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신청 가능(사이버지점에서 신청 불가)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복지할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1~3급)

- 지원내용 3개월(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 월씩 연장(당월 납기일 전까지 신청 시 당월 요금분부터 납기 연장 적용)

○ 신청기간 4. 8(수)~6. 30(화)

○ 준비사항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 지사 (FAX 등)를 통해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0’번)

5월 종합소득세·개인자방소득세 신고의 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해 주세요.

신고기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별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 가능		
납부기한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전 납세자		
신고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성남시청 3층 탄천관 회의실 신고센터(모두채움신고대상자) ○ 전국 세무서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납부방법	○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카드납부(타 은행 시 수수료 900원 발생) ○ ARS 전화납부(031-729-3650) ○ 가상계좌납부 등		
홈택스에서 한 번에	코로나19 피해 신고기한 연장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방문 신고 장소 확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자방소득세 동시신고 가능	ARS(1833-9119)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개인자방소득세 동시연장 신청 가능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 인정)	전국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 어디서나 방문신고** 가능 * 광역자치단체 제외 ** 단순경비율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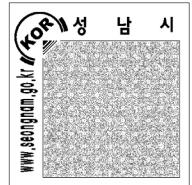
개인자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1000, 110, 수정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31-729-5201~5

중원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31-729-6201~5, 분당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1팀 031-729-8391~5

2020.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4월 29일~5월 29일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
- 의견제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
 - 개별주택가격 : 일사편리(www.kras.go.kr),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수정구 세무과 과표팀 031-729-5170~2, 중원구 세무과 과표팀 031-729-6170~2, 분당구 세무2과 과표팀 031-729-7170~1



“코로나19, 어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위생청소관리업체 제일방역 고일복 대표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오늘은 방역을 어느 장소에서 하시나요?

“남한산성역에서 방역을 마치고 단대오거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다음 장소는 산성역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 제일방역 고일복(65·태평3동) 대표를 단대오거리역에서 만났다.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고일복 대표와 여성 한 분이 꼬인 줄을 풀어 주고 짧은 듯하면 줄을 늘여 주면서 소독에 여념이 없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어르신의 전동차를 조심스럽게 소독한다. 승객들이 내리고, 지하철이 떠나고 나면 지나간 곳을 다시 소독했다.

“꼭 2인 1조로 소독을 합니다. 나부터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매일 방역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고일복 대표.

고일복 대표는 1980년 충북 제천에서 결혼을 하고 곧바로 성남에 취직돼 성남시민으로 산 지가 40년, 직장 퇴사 후 2006년 5월 위생청소관리업체인 제일방역을 설립하고 직원 여럿이 함께 일해왔는데 요즘은 단출하게 일하고 있다고 한다. 신亨2동에서 재개발로 인해 지금의 태평3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고 대표는 방역소독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6개월 동안 서울까지 가야 하는 시간이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사스, 메르스 때는 성남중앙병원 소독을 담당했는데 그때도 바빴다.

이번 코로나19에는 은혜의강교회 집단확진자가 나오면서 쉴새 없이 방역일정이 잡혔다. 확진자가 지나간 곳은 모두 소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미용실과 편의점, 사무실, 화장실까지 동선을 따라 철저히 소독하느라 종일 바빴다. “이름이 ‘일복’이라서 ‘일복’이 많은가라는 주위의 말을 들

어도 나름 기분이 좋다”고 한다.

지난 1월 수정구보건소 방역기동반 발대식 후 방역 활동을 시작했다.

성남시에는 27개 방역업체가 3개 구 보건소 위탁으로 방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고일복 대표는 성남시방역협회 회원으로 매년 건강박람회 부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민원 해결은 신속 정확하게, 관할지역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봉사합니다.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기술습득에 노력합니다. 지역사회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바지합니다. 방역 요원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성남의 골목골목이 눈에 선하다는 고일복 대표. “코로나19가 어서 멈춰줬으면 좋겠다. 봉사도 하면서 힘이 닿는 한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라고 한다.

중앙동에 사는 안명현(중앙동·대학2년) 씨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빨리 잡잡해져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역에서 소독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라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양육공백 아이돌봄서비스로 해결하세요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대상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이용요금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으로 본인부담액 시간당 1,483~9,890원(야간·휴일 추가 부담)

● 내용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쟁쟁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등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돌봄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수족구병, 독감, 눈병, 구내염 등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됐을 때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및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가입 필수

정부지원 가구(가·나·다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미지원 가구(라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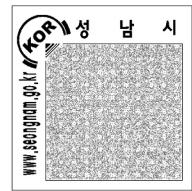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70-8889-151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새롱이새남이집 입소 안내

- 입소대상 숙식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기간 2년(필요 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 가능)
- 입소절차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입소결정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부모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500만 원)
- 입소문의 새롱이새남이집 031-755-5453 홈페이지 www.sshouse.or.kr 카카오톡 채널 ‘새롱이새남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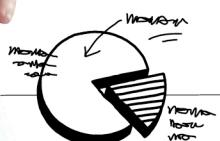




일상의 기록이 성남의 보물이 됐다

23년간 가계부 써온 이은순 씨

취재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한 주부가 23년간(1993~2015년) 써온 가계부와 장롱 깊숙이 오랫동안 보관했던 1971년에 광주대단지 분양을 위해 제작한 '광주 대단지 건설 약도'가 성남 도시역사 관련 유물로 매입돼 화제다.

"건설약도는 위례로 이사하면서 짐 정리를 하다가 찾았어요. 구하기 어려운 지도라고 화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23년간 써온 제 가계부도 유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23년간 가계부를 써온 이은순(74) 씨는 "원래 기록을 좋아했다"면서 "500원이면 친구랑 둘이서 100원짜리 커피 마시고 120원짜리 짜장면까지 먹었던 시절부터 수입과 지출을 작은 공책에 적었는데,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쓴 것은 결혼 후 중앙동에서 작은 구멍 가게를 하면서부터예요"라고 말했다.

어려운 시절, 6남매를 키워야 했던 친정엄마의 입출금을 메모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에만 쓴다'는 것이 몸에 뱉다는 이은순 씨.

"가계부엔 가족의 소소한 일상과 개인사가 기록돼 있지만 박물관에 성남의 유물로 보관해 준다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팔았으니 돈을 받았는데, 오히려 내가 보관료를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이 씨는 가계부를 적으면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통계를 내보면, 필요 없는 지출이 뭐였는지, 그 안에 가정경제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정보가 보인다고 했다.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장사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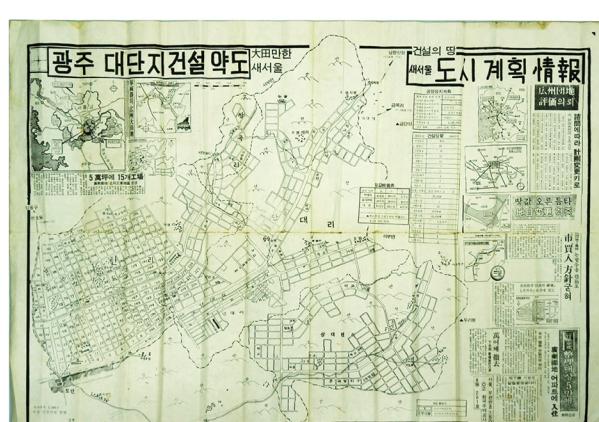
니 늘 현금이 들어오는데 어째서 돈에 쪼달리지?' 그래서 가계부를 보여줬지요. 남편이 체면유지비로 여기저기 찬조한 돈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한다. 필요한 것에만 쓰고,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쓴다는 그는 늘 짠순이로 살았지만, 정작 집안의 대소사에는 큰손으로 쓸데는 쓰며 살고 있다고 했다. "흉보면서 닮는다더니 우리 며느리도 달라졌더라고요. 시집와서 처음엔 뭐든 신형 좋은 것, 편리한 것으로 바꾸라고 하더니 이제는 누가 뭘 권해도 '필요한 것에만 쓴다'고 말하더라고요. 내심 흐뭇했네요."

열심히 산 덕에 2년 후면 입주할 새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노후대책으로 완납한 보험도 있다는 그는 "속으로는 늘 당당해서 내가 나를 칭찬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동 재개발로 가게를 접고 위례로 오면서 장사할 때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현재 성남시 당시시니어클럽 회원으로,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청준단 회원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을 제작하며 활발히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

"가계부 쓰는 거요? 그것은 제가 살아 있는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인터뷰 내내 환하게 웃으며 툭툭 던지는 그의 말이, 소소한 일상의 얘기로 안부를 전하듯 편안한 만남이었다.



생활법률
Q&A

상속재무도
상속인들이 협의해
분할할 수 있나요?

Q. A인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자녀 갑·을·병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는 2억 정도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갑·을·병은 모여 회의한 끝에 병은 미혼이며 신용불량자이니 아버지 빚을 다 떠안는 걸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을까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돼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라면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 상속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빚의 경우, 즉 소극적재산도 상속분할협의가 가능할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이 모여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빚을 다 갖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무는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갑·을·병의 회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렇게 빚을 나누어도 된다고 동의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상속과 무관한 문제이며 이에 동의할 채권자도 없을 것입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365일 + 열린의회

전문성에 기반한 + 정책의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 혁신의회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 의회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최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4월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열고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1,839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특히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대상을 94만여 명 전 시민으로 확대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수정해 의결하고,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범위를 30%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해 집행부와 함께 자체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예산 2억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동참했다.

**성남지역
보궐선거
당선인
(2020.4.15)**



강현숙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성남시라선거구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전)성남시
자율방범
협의회 회장

모바일로 생방송 보기

1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접속 www.sncouncil.go.kr → 2 인터넷방송 클릭 → 3 ON-AIR 클릭

< 지난방송 다시보기 >로 지난 회의 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SNS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www.facebook.com/sn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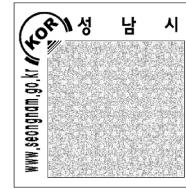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n_council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남

성남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은
인터넷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민원 031)729-2532~3
인터넷방송 보기 www.sncouncil.go.kr



여성의 꿈과 내일을 응원하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수정구 위례동으로 이전… 성인여성 위한 교육훈련·취업 지원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가 4월 1일 분당구 금곡동에서 수정구 위례동으로 이전했다. 위례광장로 KCC웰스타워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웰스타워 3층 입구에는 센터 명칭과 개관연도인 since 1998을 알리는 표지판이 조명 아래 반짝거리고 있었다. 통로에 적혀있는 '여성의 꿈 내일을 응원합니다'라는 캘리그라피 문구가 환영한다는 인사로 다가온다. 센터의 문을 열자 오픈된 사무 공간과 깔끔한 휴게 공간이 눈에 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강의실과 컴퓨터실, 취업상담실을 갖춰, 이용자가 보다 안정되고 편리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취·창업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기관이다. 20여 년간 청년부터 중·고령층, 경력이 없는 전업주부부터 경력단절여성까지 모든 성인여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상담 및 취업, 사후관리지원사업을 지원해왔다.

최근 교육훈련사업은 성남지역 내 유관기관이나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성남산업진흥원 등 여러

경로의 네트워킹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전문가,

SW교육전문가, 이모티콘캐릭터 디자이너 양성 과정과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게임 QA&GM 전문가, 데이터 AI융합인재 양성과정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가죽 에어팟케이스, 봄맞이 리스 만들기, 꽃차와 꽃비누 만들기 등 1 일 특강과 사회문화 프로그램, 2020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으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여성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다.

센터 정은옥 부장은 "센터는 개인 특성과 역량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일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한 분은 꼭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는 기대와 포부를 전했다.

INFORMATION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연락처 031-718-6696

홈페이지 www.snw.or.kr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KCC웰스타워 3층

구분	세부내용
여성채용지원 장려금	<p>2020 새일여성 인턴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 - 성남시일센터를 통해 여성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 연계기업에 3개월간 월 80만 원씩 총 240만 원 인턴채용지원금 지원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60만 원 지급 ※ 타 정부 기관 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모집기간] 1~6월 [대상기업] 4대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인~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가능하며 상당 오망) [대상기업] 4대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인~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가능하며 상당 오망)</p>
취업자 사후관리	<p>2020년 워밸을 위한 고충상담소(심리 및 노무 전문상담) [상담일정] 5~11월(매주 월) 19:00~21:00 [접수인원] 1일 2명(선착순 예약) [상담비용] 무료 - 심리상담: 직장 및 가정 고충상담, 경력개발 및 취업상담 - 노무상담: 근로계약, 부당해고, 퇴직금, 출산휴가 및 성차별 등 [대상자] 생남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자 또는 구직자 [접수방법] 전화·방문 접수</p>
경력단절여성 취업대비교육	<p>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자신감 회복하기, 구직활동 실전준비 [교육일정] 5. 11~5. 15, 5. 25~5. 29 / 총 5일 20시간 [교육시간] 09:30~13:30 [교육내용] 자기이해, MBTI 검사, 직업선택도구, 직업세계의 변화 이해, 실전준비(이력서자작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구직여성 [교육비용]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제외 [접수방법] 전화·방문 접수</p>
SW 교육지도사	<p>[교육대상] 인근지역 거주 미취업여성으로 관련학과 교육 수료한 자 [교육일정] 6. 1~8. 4(2개월간) / 총 47일 188시간 [교육시간] 09:30~13:30 [교육내용] 소프트웨어 교육개론, SW코딩 자격증 과정, 언플러그 활동, 파이썬 지도법 등 [교육비] 전액무료</p>
데이터AI 융합인재 양성과정	<p>[교육대상] 성남시 거주 고졸 이상 청년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 [교육일정] 5. 11~9. 14(4개월간) / 총 90일 360시간 [교육시간] 14:00~18:00 [교육내용] 파이썬 활용 빅데이터 분석, 활용 및 업무자동화 모델 구축 실습 등 [교육비] 전액무료(교통비 최대 27만 원 지급)</p>
직업교육훈련	<p>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이너 [교육대상] 성남시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 교육 수료 후 취업 및 1인 창작 활동을 통한 창업 의사가 분명한 자 [교육일정] 5. 12~7. 31(3개월간) / 총 60일 240시간 [교육시간] 09:30~13:30 [교육내용] 이모티콘 트렌드분석, 이모티콘 캐릭터 제작 및 등록, 캐릭터 상품제작 등 [교육비] 10만 원(수료 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p>
글로벌게임 QA&GM 전문가	<p>[교육대상] 성남시 거주 고졸 이상 청년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 [교육일정] 5. 12~8. 31(5개월간) / 총 80일 560시간 [교육시간] 09:30~17:30 [교육내용] 게임 이해·분석·마케팅·서비스개发, ISTQB 자격 취득 준비 등 [교육비] 전액무료(훈련수당 최대 72만 원 지급)</p>
디지털마케팅전문가	<p>[교육대상] 경기도 거주 미취업여성으로 교육수료 후 취업의사가 확고한 자 [교육일정] 5. 18~7. 30(3개월간) / 총 54일 216시간 [교육시간] 09:30~13:30 [교육내용] 마케팅 채널별 활용 실무, 기업 마케팅 전략 실무, GA활용 등 [교육비] 10만 원(수료 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p>
취업성공 패키지	<p>[프로세스] 1단계 :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개인별 취업계획수립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2단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계좌제 훈련지원 등 (훈련수당 최대 40만 원) 3단계 : 이력서·자소서·면접 클리닉, 채용정보 제공 및 알선 (참여수당 최대 6만 원) [대상자] 청년층(만 18~34세)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상급학교 비진학 고교 졸업년도 재학생, 상급학교 비진학 대학·대학원 미지급 학기 재학생, 대졸 이상 미취업자, 중·장년층(만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실업자 [접수방법] 전화·방문 접수(방문접수는 중장년층 한함)</p>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크린토이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은 코로나19 극복 가정양육 지원서비스로 가정 내 장난감을 세척, 소독해 드립니다.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내용 지점별 매일 5가정의 장난감 세척 및 소독 진행
(1가정당 우체국 4호 규격박스(410x310x280)
하나에 장난감 3점 동봉)
- 운영지점 금광·수정·양자·태평·분당구청
아이사랑놀이터
- 신청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 문의 031-721-1640(내선 4번)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만 48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우선순위 추첨제)
- 내용

구분	신청기간	추첨일	등록기간	지점명	추첨인원
5차	4. 25(토) ~ 5. 8(금)	5. 13(수)	추후공지	금광점	100명
				태평점	100명
6차	5. 23(토) ~ 6. 5(금)	6. 10(수)	추후공지	양지점	100명
				중원점	150명
				위례점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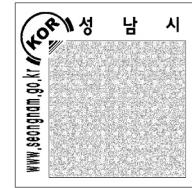


아이사랑 마스크 나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가 직접 제작한 영유아용 마스크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운영지점 수정·시청·분당판교 아이사랑놀이터
- 신청기간 5. 7(목) 오전 10시~
- 배부수량 1가정당 영유아용 마스크 5장
- 배부기간 5. 15(금)~5. 16(토) 1일 2회 진행
오전 10:00~11:00/ 오후 15:00~16:00
- 신청방법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선착순 100가정 신청
(커뮤니티→공지사항→원하는 지점 및 시간 선택 후 신청)





명의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코로나19 확산과 치과 치료



최용훈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치과(치과보존과)

치아는 하루에 2~3번씩 관리해야 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신체기관입니다. 작은 충치 치료라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치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 혹시나 하는 염려로 치과 진료를 받기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걱정되는 일입니다. 특성상 환자는 입을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치료과정 중에는 많은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미립자)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을 한다 보면 불이 촉촉해지는 경험이 다들 있을 텐데,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 없이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치아에 과도한 열손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치과는 환자로부터의 감염, 그리고 치과 의사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인 만큼 가급적 응급 치료가 아니라면 당분간 치과 치료는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치과에 가도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응급 치료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치료는 입을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치아를 갈아내는 과정에서는 타액과 물이 합쳐진 수증기가 공기 중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는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을 초래합니다.

현재 치통이 매우 심하거나 구강 내 감염 위험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급적 안전한 시기로 미루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중단할 수 없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치과를 가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치과 고르는 방법

1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치과는 피하세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명을 진료하는 치과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감염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만에 하나 옆자리의 환자가 감염된 사람이라면 치과 의사에 의해 본인 역시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진료용 글러브,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세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진료용 글러브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극소수의 치과의사는 습관이라는 이유로 글러브를 끼지 않는 데, 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간염 및 기타 혈액을 통한 감염병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3 안 아프게 진료받으세요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에 용기를 내 치과를 방문했는데 치료가 아파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을 해야 하며, 완벽하게 마취된 상태에서 진료받아야 합니다.



•••

지금 애매한 치통이 있는데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에 전화로 문의해 보길 추천합니다.

혹시 지금 애매한 치통이 있는데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에 전화로 문의해 보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찬물을 마실 때 시리거나 씹을 때 통증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치아 관리법

급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현재 건강한 치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외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당분이 많은 간식 섭취가 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충치가 쉽게 생기는 만큼 보다 세심한 치아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양치질은 하루 두 번 2분씩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위아래로 쓸듯이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양치질은 치아 마모의 원인이 됩니다.

2 치실 사용하기 이를 세게 닦는 이유 중 하나는 개운함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인데, 양치질을 세게 하기보다는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에 끈 음식물은 치실을 써야만 말끔하게 제거됩니다. 치실 사용 시 피가 난다면 치주염일 가능성성이 있는데, 이처럼 치실 사용은 구강 건강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단단하고 질긴 음식 피하기 사탕이나 얼음같이 단단한 음식을 깨물어 먹게 되면 치아 깨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충치가 없는 사람들은 치아가 더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질긴 음식은 치주염뿐만 아니라 턱관절 질환도 야기합니다.

느끼는 등의 현재 느끼는 불편감을 전화로 먼저 상담한 후에 방문 여부를 결정한다면, 치과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

상체 5도 앞으로 기울인다.

호흡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손 달걀 천 모양으로 주먹을 가볍게 쥔다.

엉덩이 엉덩이를 심하게 흔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다리 다리는 11자로 걸어야 하며 무릎 사이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걸는다.

보폭 자기 키에서 100cm를 빼거나 자기 키에 0.45를 곱하고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시선 10~15m 전방을 향한다.

턱 가슴쪽으로 당긴다.

몸 곧게 세우고 어깨와 가슴을 편다.

팔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든다. 팔꿈치는 L자 또는 V자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린다.

체중 발뒤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이동시킨다.

발 뒷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전체를 대고 11자를 유지한다.

성남시민 건강실천 프로젝트 ②

올바른 걷기 자세와 걷기 운동의 효과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내 몸 안의 면역력 쑥! 쑥!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 '걷기'로 건강을 지키세요!

걷기의 효과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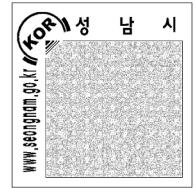
빠르게 걷기는 중강도 신체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실천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빠른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합니다.

매우 빠르게 걷기는 고강도 신체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75분 이상 매우 빠르게 걷기를 실천합니다. 하루에 15분 이상 매우 빠른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합니다.

빠르게 걷기와 매우 빠르게 걷기를 섞어서 실천할 경우 매우 빠르게 걷기 1분이 빠르게 걷기 2분임을 인지하고 각 속도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 (중강도 신체활동)
매일 30분
1주일 5회

매우 빠르게 걷기 (고강도 신체활동)
매일 15분
1주일 5회



장서각 산책

조선시대 전염병과 사회적 거리두기



허원영 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항생물질의 개발이나 예방 백신의 개발 등 의학의 발달이 영양과 위생 개선과 함께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한때는 우리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은 꾸준히 발생해왔고, 그중 몇몇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전염병을 의미하는 한자 ‘역(疫)’을 ‘백성들이 모두 앓는 것[民皆疾也]’이라고 풀이한다. 『석명(釋名)』에서는 ‘역(疫)은 역(役)이다’라고 해 요역(徭役)과 같은 집단적 부역과 연관짓기도 한다.

대규모 요역의 경우 전국의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부실한 영양과 위생상태 속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게 됨으로써 전염병의 발발과 전파가 급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이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그 전파가 지역을 넘어가며 확장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범지구적 전파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배경이 된 것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교통의 발달과 세계화일 것이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치료약과 백신이 없는,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

다. 그래서 대두된 일상의 변화가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새로운 것은 아니며, 전염병을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상의 많은 활동을 자제하며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의 일기인 『인재일록(忍齋日錄)』에도 이



조극선의 일기, 『인재일록(忍齋日錄)』과 『야곡일록(冶谷日錄)』

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621년(광해군13)에서 이듬해 초까지의 기간에 극선 일기가 거주하는 덕산현(현 충청남도 예산) 일대에는 흥역 등 전염병이 잇달아 창궐했다.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던 조극선 일가는 전염병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 10개월이나 거주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줄여나갔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제사와 아버지의 생신과 같은 중차대한 일도 포함됐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조극선 일가는 노비를 포함해 7명의 식솔을 잃었고, 말도 3마리나 죽어나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1년이 넘도록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엄혹한 전염병의 시절을 견뎌 나갔다.

이러한 모습은 전염병을 대처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이문건(李文健 1494~1567) 역시 1556년(명종 11) 봄에서 여름 사이에 흥역이 퍼지자, 할아버지가 쓴 손자 육아일기 『양아록(養兒錄)』에 ‘크게는 제사를 멈추고 작은 일로는 길쌈을 그만두었다’고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흥역은 2~3개월 만에 사그라졌고, 다행히도 이문건 일가는 병마를 이겨 낼 수 있었다. 어린 종으로부터 시작해 2대 독자인 친손자를 비롯한 일가 8명이 흥역에 걸렸지만 다행히 모두 건강해졌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전히 암흑 속을 헤매고 있다.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 속 클래식 음악

만화영화 <환타지아> & 뒤파스 <마법사의 제자>

코로나19로 인해 화사한 봄을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축제들은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된 상황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번 달 영화 속 클래식 음악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디즈니 만화영화 <환타지아>와 뒤파스의 교향시 <마법사의 제자>를 소개한다.

만화영화 제작으로 유명한 디즈니사가 1940년 암울하게 내놓은 <환타지아>는 8개의 단편 만화영화 모음 작품이다. 여덟 명의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에 디즈니의 상상력이 더해진,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만화영화다.

숲속 요정의 춤, 지구 탄생과 공룡의 멸종, 그리스 신화 속 동물들의 일상, 그리고 타조, 하마, 코끼리, 악어 발레리나의 춤 등 다양한 소재의 단편들로 구성된 <환타지아>의 중심엔 디즈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미키 마우스가 있다.

<환타지아> 8개 이야기 중 3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미키 마우스는 마법사의 제자다. 스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마법을 건 빛자루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다가 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고 결국엔 마법사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 폴 뒤파스의 교향시 <마법사의 제자>(부제: 고토의 발라드에 의한 교향적 스케르초)와 결합한 이 이야기는 독일 문호 고토의 시 ‘마법사의 제자(Der Zauberlehrling)’를 바탕으로 한다. 고토의 손길이 달아 탄생한 이야기가 뒤파스의 음악을 통해 청각적 생동감을 얻고 디즈니 만화영화를 통해 시각적 완성을 이룬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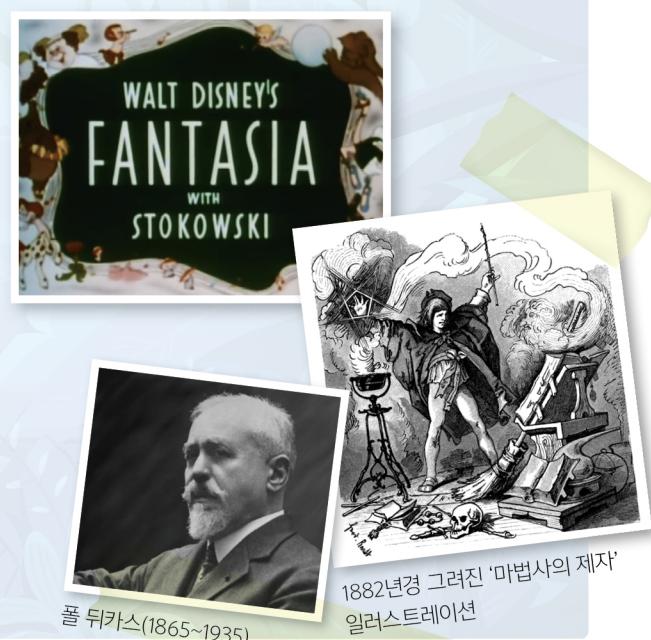
마법에 걸린 빛자루가 양손에 물통을 들고 성큼성큼 걷는 소리가 뒤파스의 음악이 아니면 달리 어떤 소리로 표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음악과 영상이 완벽하게 결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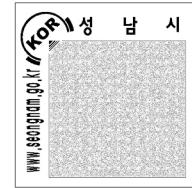
<환타지아>의 런닝타임은 126분. 두 시간 동안, 가장 추상적 예술인 음악이 디즈니라는 상상력의 프리즘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나의 프리즘은 어떤 상상을 분사하는지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유튜브에 ‘비전성남 영화속클래식 환타지아’를 입력하면 관련 영상과 음악을 찾을 수 있다. 성남시립도서관 앱에서 ‘마법사의 제자’를 입력하면 관련 그림책을, ‘환타지아’를 입력하면 애니메이션 DVD를 보유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다.

최재 조윤수 기자 chyooonsoo@gmail.com





5~6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숲놀이학교	화~금요일 10:00~10:50 11:00~11:50	5세 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숲놀이 프로그램, 우천 시 우의(우산) 준비
환경아 놀자!	화요일 11:00~11:50	6~7세 단체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교육 - 쓰고 담고 쓰고 담고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자연관찰학교	화요일 15:30~17:00	8~11세	생태 체험 정기 모니터링(1회 신청 시 2개월 정기참여) - 5월 꼬마농부 모나기/ 6월 어름의 시작
에코키즈팩토리	수요일 13:00~14:00 15:30~16:30	8세 이상 단체	천연제품 만들기를 통한 환경 안전 프로그램 - 5월 솜베리 핸드워시 만들기/ 6월 손소독제 만들기
에코키즈카페	금요일 15:30~17:00	5~7세 어린이 1명 + 보호자 1명	생태환경 체험활동 - 5월 오감으로 만나는 숲/ 6월 화랑공원의 여름맞이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가족) 일요일(개인) 10:30~12:00	가족 - 5세 이상 가족 개인 - 8~10세	직접 만든 놀이도구로 하는 전래놀이
놀며 배우는 기후학교	토요일 13:00~14:30	8~12세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게임과 놀이로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 - 5월 폐기물(분리배출 비석치기) - 6월 멸종위기의 생물들(사라지면 안 되는 얼굴들)
하나 되는 기후가족	토요일 15:00~16:30	8세 이상 가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향상 및 개선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 5월 지속가능(에코티어링 -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물건들) - 6월 이산화탄소(베드코이, 너는 누구니?)
리틀 포레스트	일요일 13:00~14:30	5세 이상 가족	자연놀이를 통한 생태적 지식과 감수성을 기르는 가족 힐링 프로그램 - 5월 봄을 찾아라 - 6월 봄을 기다리는 곤충
가치 찾는 에코공방	일요일 15:30~17:00	7세 이상 가족	버려지는 물건들의 재활용인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을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창작물 리폼 및 소품 제작 프로그램 - 5월 양말목 공예 - 6월 유리병을 이용한 나만의 소품 만들기
우리씨앗 나눔행사	5월 30일 10:30~12:00 13:30~15:00	5세 이상	씨앗 밭과 과정을 알아보고 씨앗(천일홍·메리골드·바질) 나눔과 찰흙 씨앗 폭탄 만들기 체험(현장접수)

*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 신청 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 바랍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031-8016-0100, <http://ppark.seongnam.go.kr>

맹산환경생태학습원 5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 키즈 A	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 (5~7세)	5월 애벌레야, 흰내
에코 키즈 B	초등단체		
맹산숲속이야기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가족목공교실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기후변화시대 목재의 사용 이유를 알고 다양한 소품 만들어 보기 2분기 : 손잡이 수납함
새집모니터링단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가족	인공새집 만들기부터 조류관찰, 새집 청소까지 생태원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에 관심 있는 가족 모니터링단(1~6월 활동)
절기 따라 생태원 가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가족	1차활동 : 1~6월, 2차활동 : 7~12월 24절기 중 그날에 해당되는 절기에 맞춰 전통놀이 및 먹거리 활동
열두 달 환경교실	수요일 오전	7세	12개의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는 실천형 프로그램 5월 : 미세먼지를 막아라
이야기극장	수요일 오전	5~6세	재미난 이야기를 각색한 환경생태 동극 및 오감 체험놀이 2분기 : 콩쥐는 파티에 왜 늦었을까?(자원순환)
병아리환경교실	목요일 11:00 (3~4세)	유아단체 (3~4세)	영유아 단체를 위한 오감 체험 중심의 둘러보기 활동
(신규) 살리는 살림	매주 화요일 오전	성인	친환경주방용품, 생활용품 사용으로 지구와 가족,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살림을 배워보는 프로그램(3차 시 프로그램)
(특별) 지구가 건강한 밥상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	성인	안전한 먹거리로 지구와 가족,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프로그램
(특별) 오늘은 모내기하는 날	5월 31일 일요일 14:00	가족	쌀의 생산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농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프로젝트
(전시) 맹산 가족 기자단	주말	가족	맹산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줄 가족을 모집합니다
(전시) 생태원으로 go~go~ (미션 풀고, 선물 받고)	주말	방문객	생태원 전시실, 야외학습장을 둘러보며 계절에 따른 미션을 완료하는 프로그램
(전시) 함께 읽어요	주말	방문객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어보며 환경 감수성을 길러 볼 수 있는 활동
자원봉사활동	별도협의	청소년/ 단체	도슨트, 환경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및 학교가 오프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가족 예약의 경우 매월 5일 전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맹산생태학습원 031-702-1192, <http://mpark.seongnam.go.kr>



바야흐로 청소년 세상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재단본부	제5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선거	5. 16(토)~ 6. 25(목), 40일간	온라인 등	청소년 (만 9~24세)	• 투표방법 :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www.snyouth.or.kr/youthcouncil) •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	031-729-9014																
	청소년 SNS기자단 모집	5. 6(수)~5. 20(수)	재단 및 외부활동지	청소년(만 9~24세)	• 연간 활동. 재단 및 청소년 소식 기사 취재, 원고작성, 관련 콘텐츠 제작 등 기자 활동 수행	유선문의	031-729-9023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 클래스 참가자 모집 (취미클래스, 취·창업 및 노동인권)	5월 중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만 19~34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일시</th> <th>인원</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취미클래스</td> <td>6월, 20일</td> <td>7</td> <td>꽃다발 만들기 등</td> </tr> <tr> <td>취·창업 클래스</td> <td>19일</td> <td>10</td> <td>MBTI로 알아보는 나의 유형</td> </tr> <tr> <td>노동인권 클래스</td> <td>26일</td> <td>10</td> <td>수저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사회 경제구도의 이해</td> </tr> </tbody> </table>	구분	일시	인원	내용	취미클래스	6월, 20일	7	꽃다발 만들기 등	취·창업 클래스	19일	10	MBTI로 알아보는 나의 유형	노동인권 클래스	26일	10	수저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사회 경제구도의 이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검색 :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070-4908- 2090~3
구분	일시	인원	내용																				
취미클래스	6월, 20일	7	꽃다발 만들기 등																				
취·창업 클래스	19일	10	MBTI로 알아보는 나의 유형																				
노동인권 클래스	26일	10	수저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사회 경제구도의 이해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5월	온라인	청년(만 19~34세)	- 청년 프로그램 설명 및 수강신청 등 - 청년관련 지원 서비스, 정책 및 연구자료 등	www.snspring.or.kr	070-4908- 2090~3																	
마음건강사업 '청춘상담소'	5월 중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만 19~34세)	• 청년 마음지기 활동과 양성 • 혜택 :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제공, 청년 마음건강 상담활동 기회부여(상담활동 실비지급)	유선문의	070-4908- 2090~3																	
수정 청소년수련관	2020년 청소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 모집	5. 1~5. 31	수련관	청소년 (만 9~24세)	• 모집분야 : 청소년운영위원회 [별다래], 청소년동아리 [퀴즈], 청소년문화기획단 [ICS], 청소년공연단 [TA]	유선문의	031-729-9232~4																
	슬기로운 방콕생활	5. 1~5. 31	SNS 온라인	청소년 (만 9~24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기획활동 • 삼행시 짓기, 봄사진 컨테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수련관 페이스북	031-729-9232~4																
중원 청소년수련관	꿈트리 클래스	5월 매주 토·일요일	수련관 목공장	청소년 및 성인	• 목공지도사 3급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참가비 1인 34만 원) • 테이블, 수납장, 스타일, 서랍장 등 8개 작품 제작	유선문의	031-729-9334																
	KB스타 경제교실	6월 매주 수요일 (16:00~18:00)	수련관 작은도서관	초등 저학년 (1~3학년)	•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 "돈의 개념과 현명한 소비를 배워요" • 6월 3일(수)부터 12회차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휴관이 연장될 경우 일정 변경될 수 있음	5. 23(토) 09:00 부터 유선접수 (선착순 20명)	031-729-9355																
분당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영상제작	4. 14~5. 31	정자수련관/ 온라인	청소년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 온라인 영상제 개최 • 영상제작 : 4. 14(화)~5. 8(금)/ 심사 : 5. 11~5. 15 • 본선 온라인 투표 : 5. 20~5. 26/ 결과발표 : 5. 29(금) • 시상 : 시상식은 없으며, 시상품은 개별발송 ※ 선착순 1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별도로 지급	5. 1(금)~5. 8(금)	031-729-9532																
	상담실 상담 프로그램	연중	상담실	아동·청소년· 학부모	• 상담실 안내(휴관기간 중 예약만 가능) - 대면상담, 놀아·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 코로나19 휴관기간 중 전화상담 가능(무료), 비용은 홈페이지 참조(www.tenten21.or.kr)	유선문의(예약)	031-729-9560																
분당 판교 청소년수련관	C.O.C (Circle Of Change) 청소년사회 참여 프로젝트	5~10월	수련관 및 관내 지역	20~24세 청소년	• 여성가족부공모 선정사업으로 청소년기획단 모집 구성(20~24세 청년)해 훌체어 스포크가드 제작 및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인식 변화 프로젝트 운영	5월 중	031-729-9631																
은행동청소년 문화의집	2020 성남시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	5. 23(토) 13:00~18:00	수련관 앞마당	청소년 및 시민	• 체험부스, 공연, 전시 등 '문화'라는 매개체로,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 • 지역사회 단위 체험부스 동아리 모집 • 참여 및 관람에 대한 문의(031-729-9652)	5. 2(월) 홈페이지 확인	031-729-9652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388 청소년전화	연중	센터	만 9~24세 청소년 및 학부모	• 대인관계, 부모-자녀 관계 갈등이 있는 청소년 • 다양한 고민에 대한 전화상담 및 정보제공	유선문의	031-756-138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전 시설 휴관 및 재개관 계획에 따라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www.snyouth.or.kr>



중원도서관 2020년 '한 책' 함께 즐기기 체험행사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2020년 선정도서 : 『달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면?』(조이스 라핀 지음/풀빛 펴냄)

행사명	운영기간	대상	장소	행사 내용
책표지 컬러링	4~12월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중원도서관 1층 로비	책표지 컬러링 도안을 색칠도구로 간단하게 컬러링하며 체험해볼 수 있는 상설코너
책 속 한 장면 포토존	(단, 도서관 휴관기간 제외)			책 속의 한 장면으로 제작된 포토존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설코너
한 책 슬라이딩 퍼즐 체험				책표지가 그려진 목재 슬라이딩 퍼즐 맞추기 체험코너

*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중원도서관 031-752-3913, <https://www.snlib.go.kr/jw>

성인 초·중 학력인정 학생 모집

- 주간 오전 9:30~12:20(초등), 오후 1:00~4:15(중학)
- 야간 저녁 7:00~10:00(초·중)
- 위치 지하철 8호선 수진역 2번출구 앞

* 현재 수업 중

창체학교 031-744-7004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5월 프로그램

가족상담실 이용

- 전화상담 월~금요일 13: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031-755-9338
- 사이버상담 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go.kr>) 접속
사업안내 → 가족상담사업 →
'사이버상담' 게시판에 등록(상담 진행)
- 내용 부부관계 및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 상담, 이혼 전·후 상담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27(내선 1번)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양육상담(개인상담)

구분	노무상담실	양육상담실
일정	매주 화요일 18:00~21:00 ※ 내방상담 어려울 시 전화 및 사이버상담 가능	매주 목요일 16:00~21:00
대상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재직자 (자녀 동반 불가)	성남시 거주 또는 관내 재직 부모 ※ 자녀 동반사항은 전화문의 필수
내용	육아휴직, 부당해고, 퇴직,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	자녀문제행동, 양육고충, 발달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장소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흥) 내 상담실(구 워킹맘워킹대자지원센터)	
신청	월~금요일 09:00~18:00(전화 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2020년 6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수정구청	액셀 2016	성남시민	6. 1 ~ 6. 26	월~금 10:00~12:00	5. 15(금) 09:00~ 마감 시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www.sujeong-gu.go.kr) 031-729-5072
	포토샵	성남시민	6. 1 ~ 6. 26	월~금 14:00~16:00	
수정도서관	스마트폰으로 SNS 영상만들기(12회)	성남시민 (성인)	6. 2 ~ 6. 19	화·수·목·금 10:00~12:00	5. 19(화) 10:00~마감 시까지 인터넷 접수 (https://www.snlib.go.kr/sj) 031-743-9600 ※ 과목·시간 변경될 수 있음
	사진편집을 위한 테크닉 (with 김프)(14회)	성남시민 (성인직장인)	6.13 ~ 6. 27	토요일 10:00~12:0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인터넷활용, 한글	장애인 및 성남시민	4. 1 ~ 6. 30	월·수·금 09:20~10:30	수시모집 010-5184-6884 (031-732-6884) ※ 과목·시간 변경될 수 있음
	멀티미디어(포토스케이프, 스마트폰활용, UCC)		4. 1 ~ 6. 30	월·수·금 10:30~12:00	
	ITQ 한글		4. 1 ~ 6. 30	월·수·금 14:20~15:30	
	ITQ 액셀		4. 1 ~ 6. 30	월·수·금 15:30~17:00	
	포토샵		4. 1 ~ 6. 30	화·목 10:00~12:00	
	ITQ 파워포인트		4. 1 ~ 6. 30	화·목 13:00~15:00	

* 중앙도서관, 중원구청의 무료교육 일정은 해당 연락처(중앙도서관 729-4633, 중원구청 729-6074)로 문의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병 진정 시까지 전 교육 임시휴강 중이나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시 빠른 교육 실시를 위해 매월 교육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진행 확정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월의 공연·전시



2020 마티네 콘서트

- 베토벤 250(5월)

일시 5. 21(목) 11:00

장소 콘서트홀

가격 전석 2만5천 원

문의 031-783-8000



<B클래스> : 2020 연극

만 원 시리즈

일시 5. 22(금) 16:00, 20:00

5. 23(토) 14:00, 17:00

5. 24(일) 14:00

장소 양상블시어터

가격 전석 1만 원

문의 1544-8117/ 031-783-8000



오유리 스토리텔링 오페라

<리골레토>

일시 5. 23(토), 5. 24(일) 16:00

장소 콘서트홀

가격 R석 3만9천 원/ S석 2만9천 원/

A석 1만9천 원

문의 02-2232-1148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양상블시어터, 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
반달갤러리, 갤러리808 등은 성남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 031-783-8000

*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다독여주는 탄천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우리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탄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이다. 탄천 주변에는 많은 꽃과 나무, 곤충, 물고기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 성남시의 생태환경 보전 노력으로 탄천은 더 자연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탄천은 우리 일상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탄천의 자연마저 흔들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뎠을까. 계절의 변화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며 위안을 주는 탄천을 돌아본다.

용인시계부터 주택전시관 보도교까지

성남을 알리는 표지석부터 정자동 주택전시관 근처 보도교까지 얼마나 걸릴까? 걸으면 50분, 달리면 20분, 자전거를 타면 5분? 기자는 걸어서 2시간 이 넘게 걸렸다. 물고기가 펄쩍 뛰어오르는 소리에 멈추고 발 아래서 반짝이는 작은 꽃들을 보느라 빨리 걸을 수가 없었다. 오리교 근처에 눈길을 끄는 버드나무가 있었다. 나뭇가지가 파마를 했나? 왜 이렇게 구불구불해?



아주광대나물

살갈퀴



봄까치꽃

조팝나무



정자동 주택전시관
근처 보도교



돌마교

오리교에서 구미교, 동막천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길로 손꼽힌다. 벚꽃과 단풍이 피는 계절에는 오가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이다. 미금교 주변에는 산줄기가 있어 새들도 많이 찾는다. ‘딱딱따’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면 작은 쇠딱다구리가 나무를 쪼고 있고 울음소리 끝에 ‘드르르륵’ 드러밍하는 청딱다구리(성남시 깃대종)도 볼 수 있다. 구미교 근처부터 보도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나무가 터널을 이뤄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운치도 있다. 산책로 군데군데 놓인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풍경이 된다. 천천히 이 구간을 걸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불곡초등학교 근처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보이고 농구장에서는 농구공 튀기는 소리와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무렵 음악에 맞춰 체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들도 보였다. 여름, 물놀이장엔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랐다.

봄을 일찍 맞이하느라 추운 날씨에도 달려 나간 산수유는 거친 수피와 달리 꽃은 양증맞다. 그 꽃이 지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피고 졌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며 어느덧 5월, 이제 탄천변에 아끼시꽃이 활짝 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마음을 탄천이 다독거린다.



옹버들, 나뭇가지가 퍼머를 한 것처럼 구불구불하다



오리교



동막천



구미교



미금교



아침 햇살 아래 흰뺨검둥오리



구미교에서 본 탄천



함께 만드는 비전성남

essay

코로나19 여파 속 끈끈한 가족

이은순 수정구 위례동

“딩동딩동”

누굴까? 올 사람이 없는데 고개를 간신히 돌리니 “어머나” 둘째 며느리와 손녀가 왔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양손 가득 짐보따리에는 먹을거리와 마스크 등등이 한가득이었다. “너희들이나 먹지, 우리도 있는데….”

“어머니~ 저희 동네에도 확진자가 나왔대요. 어머니,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니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되고 저희 오래 못 있어요~ 이제 그만 갈게요.” “아이구, 너네 줄 것도 없고 어떻게 해.”

하나뿐인 손녀가 모처럼 왔는데 얼굴도 실컷 못 보고, 손녀와 며느리는 10분도 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가면서 내 손에 용돈 쓰라고 봉투도 쥐어주고 간다.

허전한 마음에 소파에 덜렁 앉아 있으니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마음 써주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손녀가 예뻐서. 같은 단지 사는 큰며느리와 아들도 식료품을 자주 사다준다. 그리곤 방방이 온도를 높여놓고 간다. 사실 아파트는 춥지 않다고 절약이 몸에 밴 우리 부부는 난방을 안 한다. 아이들이 가끔 와선 난방 온도를 내렸는지 확인한다.

생각해보니 아들 둘, 며느리 둘 참 고맙기 그지없다.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잠정적으로 중지됐다. 일을 못하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없다. 그렇지만 집에만 있으니 교통비도 안 나가고 모임도 못하니 회비도 안 나가고 그냥저냥 견뎌 본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자제, 집안에만 있기, 마스크 필수,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정부 지침대로 착실히 실행하는 것만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리 노인들은 세끼 밥 먹고 한적한 산책코스 한 시간 산책하는 것 말고는 움직이는 것이 없으니 영감님은 밤이 되면 잠을 한숨도 못 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얼른 물리기라!

노인일자리가 얼른 재개돼 활기찬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할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일하는 기쁨, 일하는 재미, 노인일자리에서 일했을 때가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지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절실히 깨닫는다.

도움을 주는 삶

최순옥 중원구 하대원동

‘빠아앙 빵빵 끼이익 꺽.’

장롱면허를 가지고 밖에 나갔던 얼마 전, 상대원동 사기막골로 삼거리 앞에서 차가 시동이 꺼지며 멈춰 서버렸다.

직진하던 대형 화물트럭이 갑자기 급정거를 함과 동시에 놀란 운전자들은 손가락질과 함께 소리를 질러댔고, 일순간 도로는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그 짧은 순간에 오만가지 생각이 영화 필름처럼 주르륵 스쳐 지나갔다. 식은땀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반대편 차선에서 빠르게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후진할 수도 없었다. 나는 안절부절하면서 대책 없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눈을 질끈 감으려는 순간 내 차 앞에 급정거한 대형트럭에서 운전기사님이 문을 열고 내리더니 직접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 구세주였다.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 운전의 대명사로만 생각하던 대형트럭이 흑기사처럼 나서서 내 차를 빼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10년 같았던 직진신호가 끝나고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마음 편히 유턴할 수 있게 됐다.

감사인사를 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릴려니 트럭기사님이 잽싸게 다가와 빨리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지금 그런 인사를 나눌 상황이 아니고 빨리 차를 빼서 가는 게 안전하다고 소리를 쳤다.

정신을 차려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유턴을 했다. 그 고마운 트럭기사님을 보며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마운 일을 얼마나 하고 살았을까?’ 생각해 봤다. 나도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 능력이 된다면 남도 도와가며 더 이해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photo

탄천 Green way, My way

김수우 분당구 구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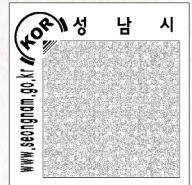
태평동 탄천 Green way를 바라보며
나는 나만의 길을 가련다.

꿀벌도 사회적 거리두기

김효진 중원구 어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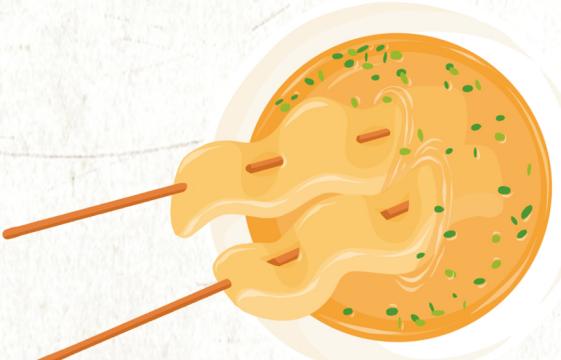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꿀벌도 동참하듯
한 송이 꽃에 홀로 앉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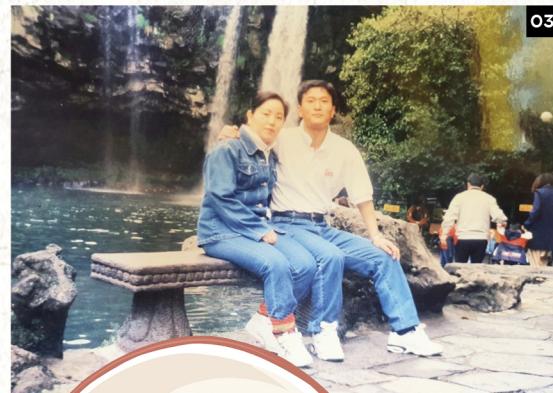
성남 종합시장(신흥3동)에는 성남극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중앙극장이 있었고 명동의류,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있었다. 종합시장 건물 내에 중앙극장을 대표로 80년대 패션을 선도하던 의류 상가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 LP 음반 빼곡한 음악다방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시장 건물 주변은 분식, 카페, 주점, 음식점 등이 많아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상권이었다. 성남을 대표하던 이곳 종합시장 상권에 ‘순창 떡볶이’란 이름의 간판이 걸린 건 1990년 어느 날이었다.



“한 평 반이나 될까? 아주 작은 공간에 오천 원짜리 의자 열 개와 선풍기 한 대 놓고 시작했어요.”
성남 제1공단,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손명철(61)·남애희(59) 부부의 연애시절 데이트 장소는 종합시장에 있던 신일떡볶이였다. 음식 솜씨 좋은 아내와 성실한 남편, 특별한 비법보다는 아내의 손맛으로 만들어진 떡볶이는 3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주머니 사정 가난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먹거리로 배를 불리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학창시절 추억으로 쌓여 왔다.



이 지면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아색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칙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



학창시절 빼놓을 수 없는 이곳, 종합시장과 순창떡볶이

세상 저렴한 추억의 떡볶이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아저씨가 지금도 계시네요? 학교 다닐 때 자주 먹었던 떡볶이 생각나서 왔어요.”

각자 500원씩 걸어서 1인분에 천 원 하는 떡볶이를 주문해 사이좋게 나눠 먹던 학생들이 어느덧 40대 중반의 학부모가 돼 이곳을 찾는다.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던 거리, 날마다 배고픔을 덜고 갔던 곳이다. 저쪽으로 가면 자주 가던 노래방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중원문고가 있었고… “그땐 그랬었지…” 선풍기 한 대의 바람을 나눠 가지며 만들었던 떡볶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한다.



30년간 천 원 떡볶이… “올해 500원 인상해서 많이 미안해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린 부부는 30년 동안 떡볶이 1인분 1천 원을 유지해왔다. 저렴함에 훌륭한 맛이 더하니 성남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 중 이곳 떡볶이를 안 먹어본 사람, 순창떡볶이에 안 와본 사람이 없을 정도다. 손명철·남애희 부부는 “물가상승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가격을 500원 인상했어요. 손님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만 1,500원 하는 떡볶이 한 접시 들고 보니 이 또한 세상 저렴한 떡볶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종합시장, 한때 ‘청바지 골목’서 ‘떡볶이 골목’으로
‘떡볶이 골목’으로 불리기 이전, 80년대엔 ‘청바지 골목’으로 불릴 때도 있었다. 순창떡볶이 개업 이후 청바지 가게가 하나둘 사라지는가 싶더니 할매·신당동 등 분식, 즉석떡볶이 전문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어느샌가 ‘청바지’에서 ‘떡볶이’로 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

종합시장 건물 철거 후 시장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떡볶이 골목이란 이름 또한 희미해져 간다. 과거의 종합시장 상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는 중앙극장을 기억할 것이다. 누군가의 기억은 중원문고에 머무를 것이다. 순창떡볶이 집에 앉아서 종합시장의 과거를 추억해 본다.



- 01 종합시장 건물 철거 전 중앙극장에서 나이트클럽으로 전환해 운영되던 모습
- 02 순창떡볶이집 외부
- 03 손명철·남애희 부부의 젊은 시절
- 04 인기가 많은 떡볶이 한상차림
- 05 떡볶이 조리 중인 손명철 사장님